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귀국 보고서]

1. 동기 및 준비과정

미국 중부에 위치한 텍사스의 UT(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는 근래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는 대학 공동체로서 학문의 공간을 넘어 오스틴(Austin) 지역의 문화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과 경영학으로 유명한 UT 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교환학생을 준비하였습니다. 미국의 학기는 1 월부터 시작하는 만큼 19 년 2 학기를 서울대학교에서 마친 후 2 주 후 오스틴으로 향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양하기에 미리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교내 보건소에서 의료 관련하여 영문으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UT 보건소에서 통용되는 서류를 준비해줍니다. UT 의 경우 한국에서 교환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학교라 인터넷에서 참조할 자료가 많기에 이를 사전에 학습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입학 전에 결정해야할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의 경우 제한(restriction bar)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UT 의 전기전자과의 경우 전공은 UT 에서 직접 신청하며 그 외의 과목의 경우 스스로 담당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어 수강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강 신청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울대와 같이 일괄적으로 선착순이 아닌, 학생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UT 에서 가장 인기있는 교양 수업은 체육 수업이기에 저 또한 체육 수업을 하나 택하였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교내 기숙사, 교외기숙사, 학생조합주택(co-op), 그리고 원룸입니다. 원룸의 경우 단기로 오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내 기숙사의 경우 쾌적한 시설과 등교의 용이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외 기숙사 또한 학교 근처에 여러 시설이 있으며 교내 기숙사와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o-op 의 경우 비영리학생자치 기숙사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UT 구성원들이 기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저와 같은 교환학생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co-op 을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co-op 은 매우 많으며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CollegeHouse 를 택하였습니다. co-op 에서 많은 교환학생들을 많이 만났으며 한국인 유학생들 또한 열 명 남짓 있었습니다. 수강신청과 기숙사 예약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개강에 앞서 출국하면 됩니다. UT 의 날씨는 매우 따뜻하여 1 월이 한국의 가을정도 날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출국에서 개강까지

저는 개강 전 교환학생 OT 를 목표로 출국하였습니다. 기숙사 개강 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머물 곳을 구하였습니다. 교통편의 경우 UT 학생은 오스틴 내 버스가 무료입니다. 학생증으로 이용하며 오스틴은 다른 도시에 비해 도시 내 버스망이 매우 잘 갖추어진 편으로 등교할 때나 근처 한인 마트에 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US(오스틴-버그스트롬) 공항에서 UT 로 직행하는 버스도

제공되어 미국에 도착시 저는 이를 이용해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 우버(Uber)와 리프트(Lyft)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는 학우들과 이동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오스틴 공항으로 직행하는 비행편은 없기에 환승을 하게 되며 저는 도착 시간이 저녁 시간대라 공항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늦게까지 우버와 리프트가 다니는 것을 보아 좀 더 서두르면 공항에서 벗어나 오스틴 시내로 갈 수 있을듯 하였습니다.(비용은 대략 40\$) 통신의 경우 저는 국내에서 해외용 유심칩을 준비해갔습니다. 유심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므로 은행계좌와 카드를 받은 후 후불유심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스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학생증과 은행계좌를 만드는 일입니다. 학생비자(DS-2019)와 여권을 가지고 UT 내에 지정된 장소에 가시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개강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많아 대기열이 길어지므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학교 근처의 Chase 에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마침 Chase 지점이 학교 근처에 생겼고 은행원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셔서 매우 수월하게 계좌(Saving)와 카드(Debit)를 만들었습니다. 오스틴은 카드 사용률이 높아 저 또한 현금을 사용한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카드, 통신, 거주지가 결정되었다면 남은 일정은 설레는 맘으로 개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개강 전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OT 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여러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3. 학기 중

학기 시작 전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은 무료면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니 시간이 되면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바빠진다는 것은 서울대와 다를 것 없습니다. 저는 전공으로 실습 과목을 택하였는데 UT 에 갖추어진 뛰어난 설비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체육의 경우 테니스를 택하였는데 외부 테니스장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잘 갖추어진 시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봄 방학 전까지는 전부 대면수업이 진행되었기에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 방학 2 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도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고 아쉽게도 현지 생활은 2 개월로 마무리하였습니다.

4. 후기

코로나 19 로 인해 봄 방학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중도에 귀국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교환학생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던 경험은 충분히 가치있었다고 생각합니다. UT 는 서울대학교와 달리 평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았고 오스틴 주민들이 UT 에 가지는 대단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만 아니었으면 완벽하였을 교환학생이었지만 급변하는 위기의 현장 속에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고 학업 또한 원격으로 마무리 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